

한 학기 한 권 읽기



최악의 최애

김다노 글 | 남수현 그림 | 다산어린이

- 연계 교과** 5학년 국어 1학기 작품을 감상해요
5학년 국어 2학기 티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6학년 국어 2학기 작품 속 인물과 나
5학년 도덕 2학기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 분류** 어린이 > 동화 > 국내창작동화
- 주제어** #성장 #다양성 #주체성 #나다움 #사랑 #용기
#입학 #졸업

6학년, 초등학교로서의 마지막 1년이 시작된다! 이른 봄을 지나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이 오기까지 1년을 보내며 각기 다른 방식과 모양으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다섯 빛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봄 이야기 <무지와 미지>에서 무지는 외모에 대한 편견에 갇혀 진짜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 여름 이야기 <눈인사를 건넨 시간>에선 남들에게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민이가 등장하며, 가을 이야기 <그리고 한 바퀴 더>에는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순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좋아하는 일을 놓으려는 준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초겨울 이야기 <확신의 확률>의 명지는 ‘나이’ 장벽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매섭게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겨울 이야기 <최악의 최애>는 최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장애’ 앞에서 어떻게 최악으로 흘러가는지를 그린다. 우정, 사랑, 나아가 인생 모든 것이 쉽지 않은 6학년의 삶을 들여다보며, 나만의 방식으로, 나답게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 **작성 : 연꽃누리** 2006년부터 주마다 마주 보며 어린이문학, 아이들 공부, 세상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초등교사 모임입니다.

차시별 수업 계획안

활동 순서 (차시)	활동 주제 (읽는 범위)	차시 계획	연계 교과
1 (1차시)	마지막 시작 <이른 봄>	-제목과 차례에서 예상되는 내용 상상하기 -시작하는 날의 느낌과 다짐 쓰기	국어 5-1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6-2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2 (2차시)	고백, 해 봤니? <무지와 미지>	-고백한 이야기 -등장인물의 마음 알아보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 -속담 활용하기	국어 5-2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국어 6-1 속담을 활용해요 국어 6-1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6-2 작품 속 인물과 나
3 (3~4차시)	괜찮은 거리, 괜찮은 시간 <눈인사를 건넬 시간>	-알맞은 거리 -선물 이야기 -싫다고 말하는, 거절하는 용기 -처음 보는 사이여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눈인사를 건넬 시간’이란?	국어 5-1 토의하여 해결해요 국어 5-1 글을 요약해요 국어 5-2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국어 6-1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6-1 비유하는 표현 국어 6-1 내용을 추정해요 국어 6-1 인물의 삶을 찾아서 도덕 5-1 내 안의 소중한 친구 도덕 5-1 긍정적인 생활 도덕 5-2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 도덕 5-2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4 (5차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리고 한 바퀴 더>	-좋아하고 즐기는 일과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그 일을 하면 좋은 점 -그 일을 더 잘하고 즐기기 위해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견해 차이, 나와 부모님의 견해가 다른 것 소개하기 -함께할 때 신경 쓰고 유의해야 할 점 찾기	국어 5-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국어 6-1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작품 속 인물과 나 도덕 4-1 힘과 마음을 모아서
5 (6차시)	순간의 선택 <확신의 확률>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방법 -오해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방법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국어 5-2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국어 6-1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6-1 대화와 공감
6 (7차시)	감춰 둔 마음 <최악의 최애> <다시 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떠올려 보기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나의 견해 정리하기 -인물의 행동을 찾고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국어 4-2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국어 5-2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국어 6-2 작품 속 인물과 나 도덕 5-1 내 안의 소중한 친구
7 (8~10차시)	동화 속 세상과 우리의 세상 -읽은 후-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파악하기 -작품 속 인물의 성격 알아보기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니기 -성격을 나타내는 말 살펴보기 -고정관념과 편견 살피기	국어 5-1 대화와 공감 국어 5-1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5-2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국어 5-2 겪은 일을 써요 국어 6-2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국어 6-2 작품 속 인물과 나 사회 4-2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1차시
<이른 봄>
마지막 시작

1. '최악'과 '최애'의 뜻을 살펴보고 '최악의 최애'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유추해 봅시다.

최악 : 가장 나쁜 것

최애 : 가장 사랑함

최악의 최애 :

2. '시작'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써 보세요.

예) 계절의 시작은 봄, 1년의 시작은 1월

2-1. 새 학년이 되어 꼭 시작하고 싶은 일과 그 까닭을 써 보세요.

일 :

까닭 :

2-2. 다음 시 <시작한다는 것은>을 감상하고 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시작한다는 것은

이동식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낮은 확률에도 희망을 갖고
나의 길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고픈 일이고 꿈이라면

*이동식 시집 《입맞춤》(지혜, 2019) 중에서

3.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무지는 고개를 들어 칠판 위를 봤다.

우라들은 지란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액자 안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에 궁서체로 일곱 글자가 쓰여 있었다.

_13쪽

3-1. 사전에서 '자라다'의 여러 가지 뜻을 찾아 쓰세요.

①

②

③

3-2.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몸:

② 마음:

2차시

<무지와 미지>

고백, 해 봤니?

1. 좋아하는 친구에게 고백하거나, 고백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살짝 해 주세요. 없다면 친구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2. 아래 내용을 읽고, 무지의 대답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써 봅시다.

“나, 너 좋아해.”

미지가 무지를 복도로 불러내 말했다. 교실 창문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돌을 보고 있었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미지는 후진이 없었다.

“난 나보다 키 큰 여자는 싫어.”

_16쪽

3. 나의 모습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나요? 왜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이유:

4. 이 작품에 나오는 네 개의 속담의 뜻을 찾아서 쓰세요.

속담	뜻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방귀 권 놓이 성낸다	

4-1. 위 속담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짧은 글을 써 보세요.

3~4차시
<눈인사를 건넬 시간>
괜찮은 거리, 괜찮은 시간

1. 지식채널 e ‘적절한 거리’(2013)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거.리.

<https://jsike.ebs.co.kr/jsike/vodReplayView?siteCd=JE&prodId=352&courseId=BP0PAPB0000000009&stEpld=01BP0PAPB0000000009&lectId=10123081>

출처: EBS 지식채널 e - 적절한 거리

1-1.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멀어지고 싶은 사람을 세 명씩 이야기해 보세요.

분류	이름이나 관계	까닭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멀어지고 싶은 사람		

1-2.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는 친구에게 이대호가 좋다고, 이 거리가 알맞다고 마음 다치지 않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2. 기억에 남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종류	누구에게, 왜 주거나 받았고 어땠나요?
받은 선물		
준 선물		

2-1. 수민이는 덕형이의 선물이 왜 부담스러웠을까요?

2-2.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나요?

3. '사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3-1. 3에 쓴 것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이 연애를 해도 될까요?

초등학생은 연애를 해도 된다 ()

초등학생은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

근거 ①

근거 ②

반론 예상:

반론 꺾기:

4. 54쪽에서 옆집 할머니는 수민이에게 “괜찮으면 들어와서 시원한 거 마실래? 고양이도 네 마리 있어. 불편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거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4-1. 거절을 잘하는 정도를 1~10으로 표현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일을 써 보세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hr/> <hr/> <hr/>									

4-2. 지금 누군가가 할머니처럼 거절해도 된다고 말해 주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4-3. 51쪽에서 민덕형이 준 선물을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민이에게 진아는 “으이그, 넌 진짜 너무 착하다니까.”라고 말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을 ‘착하다’로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나요?

괜찮다 ()

문제가 있다 ()

까닭:

4-4. 거절하는 나만의 방법, 싫다고 말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5. 수민이는 처음 보는 옆집 할머니에게 마음속에 담아만 봤던 민덕형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①

②

③

6. 56쪽에서 수민이는 옆집에서 고양이와 눈인사를 나누고, 옆집 할머니는 그 눈인사가 고양이한테는 '나는 너를 다치게 할 생각이 없어.'라는 뜻이라고 알려 줍니다. 이 장의 제목 <눈인사를 건넨 시간>은 어떤 뜻일까요?

6-1. 지금 내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5차시

<그리고 한 바퀴 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1. 준구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자체만으로 좋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써 보세요.

일	나만의 방법
달리기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는 몸을 푸는 느낌으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두 바퀴째부터는 근육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속도를 올리고 마지막에는 지니고 있는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린다. 쉬어야 할 순간을 알고 쉬는 것도 중요하다. 제대로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막히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때만 잘 넘기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1-1. 그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1-2. 1번에 쓴 일을 즐기면서 더 잘하기 위해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 달리기 훈련을 하여 하프 마라톤에 도전해 보고 싶다.

2. 좋아하는 일에 대한 준구 아버지와 기온이의 견해를 각각 살펴보세요.

곧 중학교 올라갈 텐데 이제 정리할 건 하고 공부해야지. 달리기 3년을 해도 1등 한번 못했지 않냐. 그걸로 성공할 가망은 없다는 뜻이다. 언제까지나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순 없어. **-준구 아버지의 견해-**

꼭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 해? 그냥 좋아서 하면 안 돼? 우리 태어난 지 10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지금 좋아하는 걸 해야지, 언제 하려고. 앞으로 살날이 창창한데, 뭘 벌써 포기하나? **-기온이의 견해-**

① 누구의 말에 더 공감하나요?:

② 까닭:

2. 부모님과 나의 견해가 다른 것을 하나 써 보세요.

다른 것:	
나의 견해 :	부모님의 견해 :

3.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어떤 일을 함께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준구에게 다리가 묶인 기온이가 갑자기 혼자 일어나는 바람에 곧 기우뚱하고 몸이 기울었다. “지금부터는 일어나는 것도 같이, 달리는 것도 같이, 멈추는 것도 같이.” 둘은 동시에 운동장 바닥에서 엉덩이를 떼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손으로 땅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균형을 잡았다. _95쪽

6차시
<확신의 확률>
순간의 선택

1. 나의 첫인상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적어 보세요.

좋은 점	나쁜 점

1-1. 주변 사람 중에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의 특징(표정이나 태도 등)을 떠올려 보세요.

1-2. 첫인상과 지금이 달라진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빠진 경우	좋아진 경우

1-3. 위에 쓴 나의 첫인상에 관한 것 중 나쁜 점을 좋은 점으로 바꾸기 위해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것을 써 보세요.

2. 명지처럼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오해받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명지가 이렇게 굳게 다짐하는 동안에 알림이 왔다. 심하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누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아지들 산책 이제는 같이 못 시키겠네요.

‘이제 같이, 못, 시킨다고?’ 명지 자신도 다시는 택이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서, 마치 택이가 일방적으로 작별을 고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 잘됐다, 뭐!’ 명지는 아예 중고 거래 앱을 삭제해 버렸다.

_119쪽

2-1. 오해하지 않거나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3.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은 무엇인가요?

3-2. 춘기와 대한이의 행동을 살펴본 후 배려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춘기의 행동-

“졸업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느냐면요, 얼마전 멋진 남학생이 본인 여자 친구를 위해 졸업식에 와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이들은 아까보다 더 흥분해서 함성을 지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구야, 누구?”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가 깜빡하고 남자 친구 이름을 못 물어봤어요. 하지만 여자 친구 이름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안진아 님, 있어요?” _158쪽

-대한이의 행동-

진아라면 이런 이벤트를 열어 준 최애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걸 대한이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최애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 이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건, 조금 더 나중의 이야기.

_160쪽

배려란?

4. 진아는 대한이의 모습을 보며 성숙하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가 성숙해 보이는 순간은 언제 인가요?

“너 이번에 육상에서 메달 놓쳤다며. 채준구가 치고 올라와서.”

“다시 이기면 되지.”

진아의 걱정과 달리 대한이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꾸했다. 진아는 어쩌면 저런 모습이 대한이를 커 보이게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_166쪽

읽은 후

동화 속 세상과 우리의 세상

1. 아래는 동화 속 6학년 1반 교실과 수업 모습입니다. 우리 교실, 수업 시간과 비교해 보세요.

① 자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내 자리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무지는 교탁 바로 앞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무지, 올해는 공부 좀 하려고?"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준구였다. "아니, 키 순서대로 앉으면 어차피 내가 이 자리야."

_10쪽 <이른 봄>

우리 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짝을 바꾼다. 제비뽑기로 정하기도 하고, 일찍 온 순서대로 자유롭게 앉기도 했다. 지금은 남남, 여여 짝으로 앉아 있다.

_48쪽 <눈인사를 건넬 시간>

② 교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무지는 고개를 들어 칠판 위를 봤다. 우리들은 자란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액자 안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에 궁서체로 일곱 글자가 쓰여 있었다. 유명한 동요 한 구절에서 급하게 베낀, 성의 없이 채워 놓은 급훈이 몇 년 내내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 초등 1년을 보내는 아이들을 지켜왔을 것이다.

_13쪽 <이른 봄>

③ 담임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속담 넣어서 글짓기 끝나면 걸어서 교과연구실로 갔다 줄래?" 선생님이 말을 마치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_23쪽 <무지와 미지>

④ 체육 시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오후는 체육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아직 뽀뽀 넘기를 못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수업을 할 테니 나머지는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고 했다.

_32쪽 <무지와 미지>

⑤ 체육 시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올해 운동회 선수로 나갈 사람, 지원받습니다." 최고 학년인 6학년은 다른 학년처럼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율동을 하는 건 없었다. 대신 청군 백군 팀을 나눠 나가야 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대부분 달리기였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100미터 달리기, 릴레이 달리기, 미션 달리기, 혼성 달리기……

_74쪽 <그리고 한 바퀴 더>

1-1. 우리 반, 우리 학교 모습과 비슷한 것을 한 가지만 골라 자세히 설명하세요.

1-2. 우리 반, 우리 학교 모습과 다른 것을 한 가지만 골라 무엇이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1-3. 아래 보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우리 학교나 교실의 모습을 떠올려 쓰세요.

아침 활동 시간 | 쉬는 시간 | 점심시간 | 하교 시간 | 전담 선생님 수업 시간
복도 | 계단 | 화장실 | 학교 도서관 | 운동장이나 체육관(강당)

2. 동화 속 주인공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p>서미지 ⇒ 강무지</p>	<p>“나, 너 좋아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미지는 후진이 없었다. “애기 들어줘서 고마워. 남은 6학년 동안 잘 지내자.” 미지가 무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p>
<p>민덕형 ⇒ 이수민</p>	<p>얼마 전부터 우리 집 우편함에는 ‘이수민에게’라고 쓰여 있는 선물이 들어 있었다. 며칠 뒤,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왜 내가 준 거 안 하고 다녀? 선물을 원래대로 포장까지 해서 민덕형의 사물함에 넣고 문자를 보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돌려줄게. 다음 날 그것들은 감쪽같이 우리 집 우편함으로 돌아왔다.</p>
<p>갈기온 ⇒ 채준구</p>	<p>“너랑 달리고 싶어서.” “좋아하니까.”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다 듣고 가.” “나 너 좋아하는 거 맞고, 네가 달리는 거 자꾸 보니까 달리기에 관심 생긴 것도 맞아. 네가 달리는 거 자꾸 보니까 달리기에 관심 생긴 것도 많아. 그래서 졸업 전에 너랑 같이 달리고 싶은 거야. 여기서 더 오해할 만하거나 기분 나쁜 거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p>
<p>허명지 ⇒ 서택</p>	<p>-택아, 너 어디야? -멀리 떠났다면서, 유학이라도 간 거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나 너희 반에도 갔다 왔어. 명지가 줄줄이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택이는 확인하지 않았다. 어쩌면 명지처럼 핫김에 입을 삭제한 건 아닐까, 명지는 생각했다.</p>
<p>김대한 ⇒ 안진아</p>	<p>“여자 친구 이름으로 써 주세요.” “졸…….업식에 와 주실 수 있나요? 여자 친구가 엄청 좋아할 텐데.”</p>

2-1. 좋아하는 마음을 가장 잘 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이름:

② 어떻게 마음을 전했나요?

③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으로 마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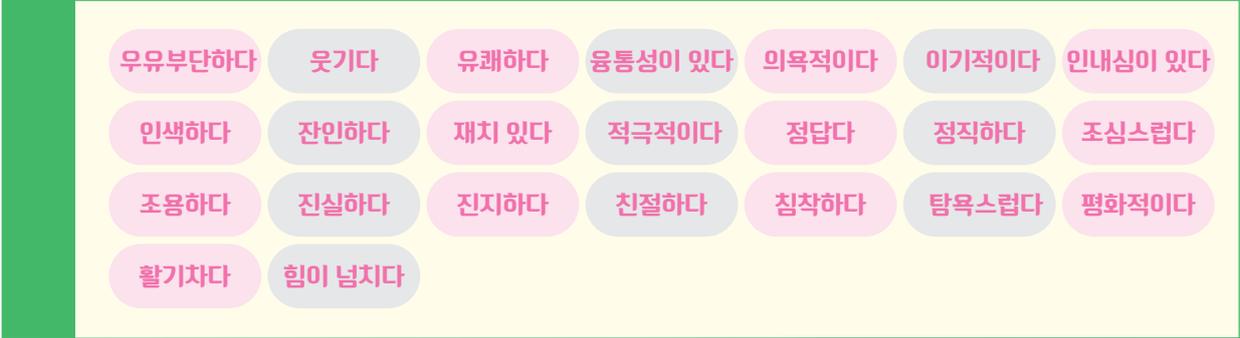
① 이름:

② 어떻게 마음을 전했나요?

③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2-3. 2번에서 마음을 전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다시 살펴보고,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함께 쓰세요.

성격을 나타내는 말	간사하다	강단 있다	거만하다	거칠다	겸손하다	고집이 세다	공정하다
	관대하다	긍정적이다	까다롭다	까불다	깔끔하다	꼼꼼하다	끈기 있다
	낙천적이다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냉정하다	너그럽다	다정하다	단호하다
	당당하다	덜렁대다	도도하다	도전적이다	둔하다	따뜻하다	마음이 여리다
	명랑하다	모험심 있다	무례하다	민감하다	믿음직스럽다	변덕스럽다	부지런하다
	비겁하다	비관적이다	뻔뻔하다	사교적이다	사려 깊다	산만하다	상냥하다
	섬세하다	성급하다	성실하다	소극적이다	소심하다	솔직하다	수다스럽다
	수줍다	순진하다	시원시원하다	신중하다	심술궂다	싹싹하다	쌀쌀하다
	씩씩하다	알뜰하다	양심적이다	엄격하다	여리다	열정적이다	예민하다
	예의 바르다	온순하다	온화하다	외향적이다	욕심 많다	용감하다	우물하다



① 서미지의 성격:

② 민덕형의 성격:

③ 갈기온의 성격:

④ 허명지의 성격:

⑤ 김대한의 성격:

3. ‘고정관념’과 ‘편견’의 뜻을 살펴보세요.

고정관념 :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 또는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알려진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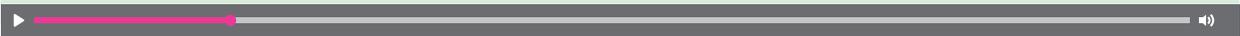
편견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3-1.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쓰세요.



① “아들은 파란색?” 아이를 둘러싼 성 고정관념, 유년기의 맨박스

<https://www.youtube.com/watch?v=OcNNotHyJ7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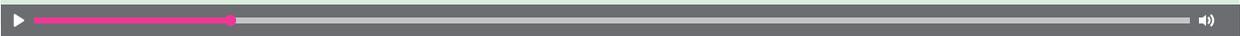


출처: 3분 씨리얼 사회탐구



② “밥 차려라·사랑 불도저” 고정관념·편견 조장 예능

<https://www.youtube.com/watch?v=QYJXJmNrkr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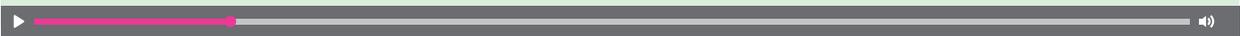


출처: YTN 뉴스



③ 연상녀·연하남 커플 전성시대... 4살 차 궁합도 안 본단 건 옛말

<https://www.youtube.com/watch?v=UoMKp-54Sv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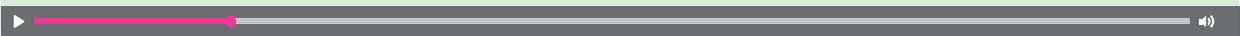


출처: YTN 뉴스



④ 휠체어를 탄 동양인 남자 in 오스트리아, 장애의 벽을 허무는 배리어 프리

<https://www.youtube.com/watch?v=aVRKa8aDPwQ&t=138s>



출처: MBC <일타강사>

3-2. 동화 속 장면에 드러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살펴보세요. 3-1의 내용을 생각하며 등장인물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조언을 해 보세요.

① 무지는 안 보려고 해도 자꾸만 미지가 눈에 들어와서 미지의 좋은 점을 하루에 한두 개씩 발견하곤 했다. ‘왜 저렇게 키가 큰 거야. 키만 나랑 비슷했어도…….’

_22쪽 <무지와 미지>

무지야,

② “아, 하지마 누나.”

명지는 택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낮설었다. 조금 전까지 의젓하게 보였던 택이는 어리고 여린 ‘막내’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며 명지는 더는 택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택이와 함께해서 행복할 확률보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았다.

_118쪽 <확신의 확률>

명지야,

③ ‘춘기를 위한 일’이라는 건 다음과 같았다. 진아가 사인회장에 들어간다. 틴케이스는 무대 위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진아가 무대 아래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춘기가 기꺼이 내려와 진아를 안거나 업어서 위로 옮긴다. 팬들은 그 사진을 찍어서 각종 SNS에 올린다. “그럼 내일 연예 뉴스에 [춘기, 알고 보니 미담 제조기 아이돌] 같은 기사가 뜰 거야.”

_139쪽 <최악의 최애>

춘기 팬 여러분,
